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음 7월 22일) 제235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 유력 정치인 대거 출마 예상

제21대 총선 누가 뛰나? ① - 전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성인 전북에서 국민의당 녹색 열풍에 휩쓸려 10석 중 단 2석만 챙기는 '원패'를 경험했다. 수 십 여년 지지해준 민주당이건만 돌아온 건 역차별과 소외였다. 지역 정치인들 무능력에 지친 전북 유권자들이 강력한 경고음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완벽한 턱발 탈환을 자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이번 총선 특징은 친노·친문 인사의 대거 포진이다. 이들 성공여부가 총선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국민의당에서 현재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뉘어 포진된 현역의원들을 무너뜨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야당 내 호남 의원들 사이에 제3세대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세너지가 얼마나 날 것인가도 무시 못 할 변수다. 선거제도와 지역구가 어떻게 나뉘질 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현 선거구)을 앞두고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이 누구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전주갑

전주갑은 현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풍지를 틀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의정보고회와 각종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을 갖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김운덕 현 지역위원장과 김금옥 청와대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중 1명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김광수 의원과 본선에 맞서게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의 실적을 다짐하며 지역조직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기반인 권리당원부터 확보하면서 차근차근 재기를 갈날을 갈고 있다. 김금옥 전 비서관은 전북대 총여학생 회장 출신으로 전북여성단체연합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제10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도내 유일 민주당 여성후보자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주갑·김운덕·김금옥 등 민주당 출마 예상자 경쟁구도

전주을·최형재·최강욱 박주현 등 출마 여부 주목

전주병·김성주·정동영 등 두 '거물'들의 재대결 예고

자유한국당 전회재 전국위원회 부의장과 정의당 영경석 도당 위원장도 출격할 것이라 정치권의 예상이다.

▲전주을

전주을은 더욱 치열하다.

도내 다른 선거구와 달리 17대부터 20대까지 재선을 허락하지 않은 정치적 '물갈이'로 뜨거운 지역구다.

지난 총선에선 32년간 빛장을 걸었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에게 금배지를 달아줄 정도다.

당시 새누리당 정문천 의원(현 바른미래당)은 1984년 입법현 전 정

와대정무수석에 이어 3번의 도전 끝에 지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렇기에 석패했던 지난 초선의원들의 절치부심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변수를 낳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경선을 기다리는 민주당 후보들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최형재 노무현재단전북지역위 공동대표, 이덕춘 변호사의 3지대결 구도 속에 민병 출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친노·친문 이종선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참여 후보도 볼거려다.

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여기에 김호서 전 도의회 의장 등의 출사표도 지켜진다.

또 평화당을 등진 유성업 의원 등의 대안정치 후보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전주병

전주병은 두 거물의 재대결이 예정돼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이다.

평화당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다.

20대 총선에서 정 의원은 989표 차로 초선이었던 김 의원을 합틀게 제압했던 지역구다.

정 의원은 현재 유성업 의원 등이 참여한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분당 속에 당 생활을 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출신답게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지정 등 지역 경제 현안 해결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 당시 두 후보간 혈투가 치열했던 데다 경쟁력과 정치적 중립감이 높아진 연유로 이들에게 도전하려는 후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자유한국당에선 김성진 당협위원장 출마가 예상된다. /고민형 기자



2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 탄소산업 비전에 대한 전략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탄소산업 2028년까지 1조4436억 투자”

송하진 도지사, 국내 탄소소재시장 주도 등 3대 전략 내세워

탄소산업 발전에 앞장서 온 전북도가 향후 1조4000억여원의 투자와 함께 수요 창출, 기술혁신에 적극 나선다.

송하진 도지사는 2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오는 2028년까지 1조4436억원을 투입하고 국내 탄소소재시장을 주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송 지사는 이를 위해 ▲산업생태계 완성으로 국내 탄소소재시장 주도 ▲탄소융복합 기술의 혁신적 진화와 소재의 다변화 ▲탄소산업 종합적 육성

체제 확립 등 3대 전략을 내세웠다.

이날 송 지사는 당시 전주시장이던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탄소산업'을 탄생시킨 이유가 향후 전북의 먹거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고 회고하며 미래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성장할 의지를 확고히 했다.

송 지사는 “대기업인 효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 탄소소재 시장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2028년까지 국내 탄소수출액 600% 확대와 공급시장 80% 점유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중간재, 복합재 생산력 증대에 나서고 고부가가치 신시장 개척과 탄소제품 다양성 확보에도 나설 것임”을 덧붙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이 탄생시킨 탄소를 대한민국을 살리는 새로운 소재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통해 전북 경제체질을 바꾸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긴급상황 발생시 CCTV 영상데이터 유관기관에 실시간 제공

전주시,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전주시가 화재와 범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변 CCTV영상을 경찰서와 소방서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내년 3월까지 국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을 투입해 CCTV 영상관계 기반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람 중심의 전주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을 지키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안전 분야 첫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시청 8층 CCTV관제센터에 방범·방재·교통·시설물관리 등 정보시스템을 국토부 인증 표준통합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CCTV영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유관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전주시 CCTV관제센터는 112·119·시 재난망·사회

적약자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전주시 1219개소에 설치된 2822대의 영상을 통합 관제함으로써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서비스를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달 중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후 'CCTV 영상관계 기반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